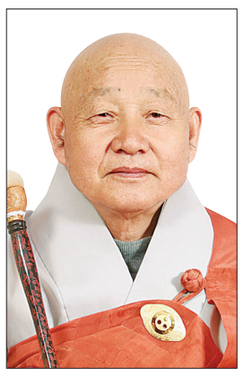
참된 삶 보이시려 이 땅에 나투시었네!

성파 대종사
조계종 종정



摩訶大法王(마하대법왕)이여
無短亦無長(무단역무장)이로다
本來非皂白(본래비조백)이로되
隨處現靑黃(수처현청황)이로다.

크고 크신 법왕이시여!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으시도다.
본래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지만
인연 따라 청황으로 나투시도다.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심은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희유한 일이요, 사바세계에 지혜광명을 비춰주신 경하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중생에게 본래 구족한 여래의 지혜덕상을 활용하여 부처의 삶, 참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립과 갈등은 화합으로 치유하고, 탐욕과 무지는 청정으로 다스리며, 중생의 행복을 위해 바라밀 실천을 권장하셨습니다.

모두에게 구족한 지혜덕상을 인정하고 활용하면 넉넉하고 원만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화합으로 살아가면 곳곳의 물이 바다로 모이듯 모든 이들이 하나로 모여 동체대비를 실천하며 살게 됩니다. 청정한 삶은 불안과 공포가 소멸되고 대립과 갈등이 치유되며 모두가 신뢰하여 한 몸이 되게 하며, 바라밀 실천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삶의 터전을 넓히는 최고의 방편입니다.

이러한 최상의 삶을 보여 주시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떠한 허상에도 속지 않고, 한 중생도 외면하지 않는 대지혜인이 되고 대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法王權實令雙行(법왕권실영쌍행)하니
雷捲風馳海岳傾(뇌권풍치해악경)이로다.
霹靂一聲雲散盡(벽력일성운산진)하니
到家元不涉途程(도가원불섭도정)이로다.

법왕께서 권실법을 쌍으로 행하시니
우뢰 바람 몰아쳐 바다와 산이 기울었도다.
벽력소리에 구름은 모두 흩어지고
집에 이르고 보니 원래 길에 나선 적이 없었더라.

온 누리에 부처님 법신이

도용 대종사
천태종 종정



대자비 원력으로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 중생의 인연 따라 천백억 몸을 나투시어 교화의 손길을 펴시니 부처님 만남은 최상의 기쁨이어라.

행복은 마음의 평화에서 깃들며 온전한 만족에서 샘솟나니. 부드럽게 받아주는 유화인욕과 끝없는 선행으로 부처님 나라에 이르리라.

수행으로 나를 다듬어 혼탁한 세상을 지혜로 바라볼지니 내 안에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며 만나는 일마다 공덕이 되리라.

환희와 찬탄의 마음으로 국운융창과 인류의 행복을 기원하며 보살행으로 부처님 세계를 장엄하니 부처님오신날 산하대지 온 누리에 법신의 모습이 드러나리라.

세상은 은혜의 터전입니다

경정 정사
진각종 총인



오늘은 초파일 부처님이 오십니다. 부처님은 오고감이 항시 자재하여 시공에 걸림 없고 누구든 분별 않고 정토세계 펴시려고 그렇게 오십니다. 모두 함께 정성 다해 받들어 봅시다.

중생이 있는 곳에 부처님이 계시고 세상살이 어디나 안락의 처소이니 마음 맑은 사람은 이 이치 깨치고 눈 밝은 선남선녀 그 도리 밝혀서 지금 이곳에 장엄국토 펼쳐갑시다. 소리는 공명하여 더욱 크게 울리고 자타의 상승(相乘)은 공력을 증폭하듯 귀천과 빈부가 다독여 상생(相生)하고 계층마다 갈등을 어울러 화해하여 은혜가 넘실대는 웃음 꽃 피웁시다.

남 허물 바루려면 다툼이 일어나고 내 잘못 먼저 고치면 남이 따라오니 너 탓 내 자랑 서로 앞서 주장 말고 공사(公私)를 가려서 공도를 세워 가면 투쟁을 잠재우고 정의가 자리합니다.

탐욕의 거친 말과 분노의 험한 소리 저마다 까닭으로 절절히 아우성쳐도 허공의 메아리로 소란만 드높아지니 진언(眞言)의 향음(響音)을 짙게 품고서 곳곳마다 해묵은 원한을 정화합시다.

강한 자의 유세도 약한 자의 넋두리도 인연의 그물 안의 부질없는 헛수고라 은혜의 큰 품으로 다 모여 얼싸안고 주고받는 넓은 삶을 여실히 살려내어 오신 뜻 깊이 새겨 평화를 수놓읍시다.

삼라만상은 나와 한 몸

홍파 대종사
관음종 종정



오늘은 "부처님오신날" 사월 초파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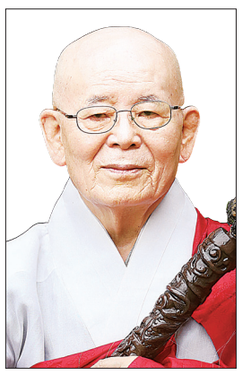
꽃향기 그윽한 향기와 초록의 향연이 펼쳐지는 밝은 마음, 맑은 마음의 날입니다.

天上天下 無如佛(천상천하 무여불)
十方世界 亦無比(시방삼세 역무비)
世間所有 我盡見(세간소유 아진견)
一切無有 如佛子(일체무유 여불자)

부처님의 설법, 자비의 찬가를 우러러보아도 하늘 위, 하늘 아래 부처님 같은 분 없어라! 온 세계 살펴보아도 비교할 분 없다네!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이 부처님 자식일세. 부처님과 같이 우리 불자들 하늘과 땅이 나와 한 뿌리요, 삼라만상은 나와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네. 아! 기쁘다. 대우주와 소우주(자신)는 둘이 아닌 공생의 一大事(일대사)여라!!

마음 등불 밝혀 세계평화 이루자

운경 대종사
태고종 종정



명명석명(明明石冥) 심연등(心蓮燈) "밝고 밝아 꺼지지 않는 마음의 등불을 밝히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모든 중생들에게 본래 고향인 부처의 세계로 돌아가도록 일깨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태어나 깨달음을 통해 부처님이 되셨고, 모든 중생들도 원래 부처인데 중생으로 생사고해를 헤매는 것이 안타까워 많은 가르침과 방편으로써 부처되는 법을 시현하셨습니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주관하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고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에 천당과 지옥이 있고 선과 악이 함께 합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과 테러로 민생이 불안하고 경제침체로 사람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마음의 등불, 지혜의 등불, 자비의 등불을 밝혀 굶주린 이에게는 풍요로움을 주고, 전쟁과 테러가 있는 곳에는 평화로움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 김정은에게는 핵 포기의 계기가 되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자유와 안락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불자들이 한 마음으로 모든 인류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마음의 등불을 밝힙시다. 세계평화가 실현되어 모두가 안락국토에 태어나길 기원합니다.

천천지지(天天地地) 안락찰(安樂刹) "하늘은 하늘이요 땅은 땅이니, 모두 평안하리라."

고통 해방하는 자비의 등불 밝히길

지성 정사
총지종 종령



오늘은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부처님의 성품을 가진 절대평등자임을 선언하셨습니다. 나와 이웃과 자연 모두는 불성을 지니고 태어났으며, 부처님과 너와 나는 하나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념과 사상, 계급과 계층, 지위와 위상은 서로 달라도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소중한 부처님의 불성을 가진 절대평등자로서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많은 지역에서 국가와 민족의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과 전쟁에 대한 책임은 불교의 인과법으로 볼 때 어떤 형태로든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분쟁과 전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과 이로 인한 상대방에 대한 공격성 그리고 잘못된 이념과 편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과 전쟁을 해결하려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분별심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어온 삼독과 탐욕, 질투와 어리석음으로 인한 공업을 깊이 뉘우치고 참회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샤까족과 꼴리야족의 로히니강 분쟁사건을 해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증오 속에서도 증오 없이, 미워해야할 사람 속에서도 미움을 버리고 우리 자유롭게 살아가자."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애틋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듯이,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부처님의 본불성과 자리이타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지혜로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일체중생을 고통에서 해방하는 자비의 등불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성도합시다.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방 장 여산 정여 대종사
주 지 산해 정오
신도회장 이 윤 희

총림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www.beomeo.kr 종무소 051)508-3122